

# 임실, 국가예산 확보 동분서주

### 심 민 군수, 주거지 주차장 조성·실내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지원 등 건의

심 민 임실군수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법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및 내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심 군수는 14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를 차례로 방문하여 주요 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 예산 확보에 구슬땀을 흘렸다.

심 군수는 "지금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사전 검토 및 부처별 사업평가와 기획재정부 정부예산 3차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분주한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심 군수는 임실군민을 위한 복합공간인 '임실을 행복누리원' 건립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총력을 펼쳤다.

임실군은 그간 전라북도 국가예산팀, 시설별 소관 사업부서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전문가들의 끊임없는 자문을 통해 지난 2일 임실

을 행복누리원 건립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

임실을 행복누리원은 주거지주차장, 가족센터, 국민체육센터, 주민자치센터가 결합된 주민 맞춤형 복합 시설로, 이를 통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던 문화체육공간과 주거지 주차장 부족, 그리고 열악한 가족센터 환경개선 부분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심 군수는 먼저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해 김홍목 부단장에게 열악한 생활 복지인프라 개선을 위한 임실을 행복누리원의 사업 선정을 적극 건의했다. 이어 여성가족부 김민아 가족정책과장과의 면담을 통해 협소한 지원 센터 기능 및 확대를 위한 가족센터 건립 예산지원 당위성을 거듭 설명했다.



심 군수는 14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를 차례로 방문하여 주요 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예산 확보에 구슬땀을 흘렸다. /임실=진홍영 기자

곧이어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한 심 군수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박건수도시교통과장에게 주거지 지역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한 주거지 주차장 조성 당위성을 적극 설명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박현경 체육진흥과장과의 면담을 통해 갈수록 늘어가는 중심지 주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실내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지원도 거듭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철도 이용객 맘 편히 다녀오세요

### 남원역 임시주차장 161면 조성, 주차난 해소 한몫

남원시는 남원역을 이용하는 시민 및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남원역 인근에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이번에 조성될 임시 공영주차장은 한국철도공사 부지에 남원시와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와 계약을 맺어 일반용 132면, 장애인용 5면, 경차용 8면, 아동 및 배려 16면으로 총 161면의 주차장이 들어서게 된다.

부지를 매입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주차장 1면당 3000~4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나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남원역 임시 주차장은 부지를 임대하여 임대료를 시에서 부담하고 주차장을 조성 운영하는 조건으로 임대조건은 5년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연장할 수 있어 시 예산 절감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남원역 임시주차장은 현재까지 포장 공사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부대시설(보호펜스 및 인도)을 설치하고 있으며, 남원역 공영주차장 조성이 완료되면 지역주민들은 물론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통행불편 및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남원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협소한 주차장으로 인해 도로위에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교통혼잡을 방해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에 있어 오래전부터 이용객들의 숙원사업으로 금번 주차장 공사를 환영하고 있다.

시는 현재 공영주차장 36개소(1863)면을 조성해 운영 중이며, 올해 68억 원을 들여 우선순위에 따라 도심지 유희토지에 주차장 3개소(운봉읍, 도



통동, 왕정동)와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거 밀집지역에 생활형 주차장 조성을 준공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 교통과장은 "내년에도 38억 원을 들여 우선순위에 따라 도심지 유희토지에 중·소형 주차장 3개소와 주차장이 부족한 구간에 생활형 공영 주차장을 확보할 방침"이라며 교통질서 및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주차장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8월 광한루각 특별개방'

### 광한루 600년 기념 선현들의 시문 182점 걸려

남원시가 광한루 600년을 기념하여 광한루각을 31일까지 특별 개방한다.

광한루 건립 의미와 역사·문화적 가치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관광해설사의 설명과 자유 관람 시간으로 구성되어 매일 2회(10:30 / 14:00) 약 30분 동안 이루어진다.

시는 그동안 문화재 보존을 위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한루를 개방하지 않았으나, 관광객들이 광한루원의 진정한 멋을 느끼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

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예약자를 우선으로 진행하며, 광한루원 북문매표소 또는 전화(6620-8903, 8905)를 통해 예약 가능하다.

광한루는 과거 호남에서 가장 뛰어난 경관을 지닌 누각이라하여 '호남제일루'라고 불리었으며, 광한루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풍경과 누각의 예술적 극치를 예찬하는 선현들의 시문 182점이 걸려있다.

현재 광한루는 보물 제281호로, 광한루원은 명승 제33호로 지정되어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매아리

### 순창군, 고객편의 민원환경 조성

순창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고객편의 민원환경조성과 민원서비스 개선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먼저 노약자·장애인 등을 배려하여 읍면사무소에 민원인용 보청기를 비치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높이고, 민원인들이 각종 서류 작성 시 활용 할 수 있도록 8배율 확대경을 구입·비치할 계획이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설치해 다양한 민원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각종 민원업무 담당하는 직원들의 스트레스 진단·해소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원 복지향상 뿐만 아니라 대민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련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민원실 비상상황에 대비해 안전 비상벨도 추가 설치해 민원환경을 개선한다. 이에 앞서 군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민원안내 책자 발간과 점자주민등록증 발급 등의 민원편의 시책을 발굴·시행하고 있으며, 순창읍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도 연중 24시간 이용 가능도록 시설 개선을 완료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군, 2022년까지 마을하수도 정비

### 264억원 사업비 투입

순창군이 2022년까지 26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15일 동계면 어치리 내동지구와 서호리 서호지구, 현포리 신촌지구를 비롯, 쌍치면 금성리 피노지구와 북흥면 담동리 비석지구 등 총 5개 지구를 대상으로, 관로 27.5km를 매설하여 2022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중인 5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중 서호지구 마을하수도사업은 연내 준공을 앞두고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가정에서 배

출되는 각종 생활오수를 차집, 하수처리장에서 직접 처리하게 돼 주거환경 개선과 심진강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각 가정에 설치된 기존 정화조가 폐쇄됨에 따라 그동안 주민들이 겪어왔던 악취 문제 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군 안동읍 환정수도과장은 "순창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하수도 관련 국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과 심진강 수질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군, 광복절 경축행사 기념식

순창군이 15일 순창 향토회관에서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 제74주년 경축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황숙주 순창군수를 비롯, 순창군의회 정성균 의장과 순창군의회 의원, 기관·사회단체장,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군민 500여명이 모여 애국선열을 위한 뜻을 기렸다. 특히 육천인 재속 중·고등학생 150여명과 장병 50명이 이번 행사에 참가해 그 의미를 더했다.

올해는 광복 제74주년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해 과거 역사를 돌아보는 한해로서, 이번 경축행사가 대내외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과거 국권침탈의 아픔 속에서 국민주권을 회복하고자 치열한 독립운동을 펼친 애국선열의 넋을 기리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

대내적으로는 최근 벌어진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고 일본에 대한 군민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속내도 담고 있다.

이날 기념사에서 황 군수는 "지난 날 우리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억압했던 일본이 과거사 반성큰령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경제와 국방 독립의 기틀을 다지고 더 나아가 순창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요리하는 대세 아빠' 강진면 요리교실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위 주민 호응 속 마무리

임실군 강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용길)는 주민여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요리하는 대세 아빠' 요리교실을 주민들의 큰 호응속에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리교실은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요리실에서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운영됐다.

군은 강진면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지역 남성들이 혼자서도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영양상태 개선은 물론 가족과 친해지는 계기를 만들어 가정에서 자상한 아빠(또는 할아버지)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마련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요리하는 대세 아빠' 요리교실에서 농촌지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한 생활요리를 중심으로 남성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조리기술 습득을 목표로 진행했다.

매회 2~3종류씩의 국과 반찬 조리 실습을 통해 간편하게 한 끼 식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총 5회에 걸쳐 생활요리 실습교육을 추진했다.

요리교실에 참여한 김모씨는 "이번 요리교실 참여를 계기로 앞으로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요리에 참여해서 아내와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겠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엔 치즈**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